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 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 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5년 2월 교육학석사(영어교육) 학위논문

영어 명령문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나 윤 상



영어 명령문 연구

A Study on English Imperative Sentences

2015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나 윤 상



영어 명령문 연구

지도교수 이 남 근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영어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10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나 윤 상



나 윤 상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강 희 조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 경 자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이 남 근 (인)

2014년 1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ABSTRACT

A Study on English Imperative Sentences

Na, yoon sang

Adviser: Prof. Lee Nam-geun Ph.D.

Major in English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shows the concept and type of English imperative. And it analyzes syntactic and semantic structure. The main goal of this study is how to figure out error of imperative sentence of which people usually know by analysing the imperative sentence in a semantic way with syntactic derivation.

Akmajian and Henry(1975) said that imperative sentence has been derived from the declarative sentence by imperative transformation. In the course of derivation of imperative, the subject *you* and modal verb *will* have been deleted. However, Bolinger(1977) explained that subject of imperative may not *you* by using reflexive pronoun.

Furthermore, this study shown that the structure looks like the form of the imperative but it means but it means imperative of condition. We can recognize the difference between a conditional imperative with pure imperative sentence.

Fianally, in case of general emphasize imperative, this study demonstrate through semantic analysis that it writes down *do* before the verb.





I. 서론

이 논문은 명령문에 대한 기본개념 및 유형을 알아본 후, 구조적 측면과 의미적 측 면을 통해 명령문을 좀 더 세세하게 알아보고자 한다. 명령이란 일반적으로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일을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발화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청자의 행위에 대해서 화자가 의도한 행위로 청자에게 바꾸라는 요구의 표현이라 할 수 있 다. 이러한 명령문을 교육현장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주어 you 와 동사 will 을 생략하고 동사의 어간을 그대로 문두에 내세운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러나 명령문 은 언제나 동사가 문두에 나오는 것이 아니며, 또 외견상으로는 명령문의 모습을 하 고 있지만 특수한 뜻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 동사 어간이 문두에 나와 있지 않은 여러 형태의 문장이 명령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명령문을 대했을 때 흔히 쓰이는 일반적인 명령문인지 독특한 뜻을 가지는 특수한 명령문인지 잘 분 간을 해야 한다. 또한 명령문은 사용하는 사람의 목적에 따라 다르게 규정될 수 있는 데 그것은 통사적 측면에서 보는가, 의미적 측면에서 보는가에 따라 명령문을 구분 지을 수 있다. 명령문이란 서술문이나 의문문과는 다르게 화자가 자신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지배자의 역할을 하고, 청자는 지배를 받는 자의 역할을 할 때 사용되는 문 장의 형태이다(Berry 1975:166). 즉, 명령문은 화자가 명령을 통해서 청자로부터 순 수한 언어적 응답뿐이 아닌, 그 이상의 행동을 요구, 기대하는 언어적 표현이라고 정 의할 수 있다. 명령문은 명령, 지시, 요청 등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고, 서술문, 의 문문, 감탄문과는 구별되며, 다양한 문장 구조가 일반적인 명령문 범주에 포함된다. 명령문은 평서형과 두 가지 면에서 구조적으로 다르다. 다음 예문 (la-c)을 보자.

- (1) a. You be careful.
 - b. Everybody stand still.
 - c. Let's go the beach.

즉, 명령문은 시제가 있는 형태가 아니라 동사의 기본형, 다시 말해 원형동사를 가지고 있다. 또한, 명령문은 주어를 가지고 있지 않다. Huddleston 과



Pullum(2002:924)은 문법적으로 중요한 점을 언급하였는데, 그것은 do가 어휘동사가 아닌 be동사와 연관 있는 문장에서 사용된다는 것이다. 명령문의 문법 구조가 특별히 복잡하지는 않지만, 화자가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명령문 유형을 사용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은 상황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 명령문은 서술문의 단순한 변화로 보일수 있다. 그러나 명령문은 서술문과 같은 억양을 가지지만, 세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다. 첫 번째, 서술문은 주어가 필요하지만, 명령문은 표면적인 즉, 눈에 보이는 주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음의 예문(2a-b), (3a-b)에서 알 수 있듯이 서술문에서 주어를 제거하면 명령형의 지시문으로 해석 될 수 있다.

- (2) a. You open the door.
 - b. Open the door.
- (3) a. You take her to lunch.
 - b. Take her to lunch.

두 번째, 서술문에서는 동사가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지만, 명령문에서 본동사는 항상 동사원형의 형태로 사용된다. 다음 예문(4a-b)에서 동사 *are*는 주어 *you*에 일 치하지만, 이 문장에 상응하는 명령문에서는 동사원형의 형태인 be가 사용된다.

- (4) a. You are quiet.
 - b. Be quiet.

세 번째, 명령문과 서술문의 주된 차이점은 부정이 되는 방식에 있다. 다음 예문 (5a-b)를 보자.

- (5) a. You aren't lazy.
 - b. Don't be lazy.



(5a-b)의 예문에서 알 수 있듯이 서술문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not*이 동사에 축약된 형태로 나타나는 반면, 그에 상응하는 부정문에서는 조동사 *do*와 *not*을 함께 동사 앞 문장의 시작 부분에 위치시킨다. 따라서 본 논문은 명령문의 개념을 정리하고 명령문의 유형과 구조 그리고 의미를 좀 더 자세하게 파악하려 한다. 전통적으로 명령문은 다음 예문(6a-b)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심층의 서술문 구조로부터 명령문 삭제 변형에 의해서 도출된다.

- (6) a. You will go to school.
 - b. Go to school.

명령문 (6b)는 서술문 (6a)로부터 도출되었다. 이 과정에서 갖는 명령문의 문제점은 첫째, 통사적인 형태만으로는 명령문을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의미론적인 관점에서 삭제변형에 의해 삭제되는 주어 you와 조동사 will이 가지는 문제점이 있다. 다음 예문(7a-c)를 보자.

- (7) a. Get up early and you will not miss the bus.
 - b. Study hard and I will give a present.
 - c. Open the window, and your father will see you.

(7a)는 일찍 일어나면 버스를 놓치지 않을 거라는 조건문이고, (7b)는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선물을 준다는 조건문이라고 할 수도 있고,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명령문이 될수도 있다. (7c)는 문을 열라는 명령문이다. 이처럼 구조만 가지고서는 명령문을 구분하기기 쉽지 않다. 이 논문은 종래의 명령이 가지는 구조적 문제점과 의미적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이 논문의 구성은 먼저 명령문의 개념을 파악하고 다음으로 구조적 측면에 따른 명령문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명령문의 유형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의미적 측면에 따른 명령문을 분석 다음으로 결론을 도출했다.



Ⅱ. 명령문의 분석

A. 명령문의 구조

명령문은 서술문 형태의 구조에 명령문 변형(imperative transformation)이 적용되어 주어 you 와 조동사 will 이 삭제된 명령문이 도출된다고 보았다.

Akmajian and Henry(1975: 233-44)는 명령문이 도출되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다음 예문(8a-b), (9a-b)을 보자.

- (8) a. Leave the room!
 - b. Drink your milk!
- (9) a. You will leave the room!
 - b. You will drink your milk!

예문(8a-b)에 있는 명령문은 예문(9a-b)에 있는 심충구조에서 도출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도출 과정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yourself*를 이용해서 명령문의 주어가 *you*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 예문(10a-c)을 보자.

- (10) a. Wash yourself.
 - b. *Wash myself.
 - c. *Wash himself.

예문(10a-c)에서 재귀대명사 yourself만 허용되고 다른 재귀대명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재귀대명사는 같은 절에 선행하는 동일 지시 명사구가 있을 때에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명령문의 주어가 you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이다. 부가의문문을 이용해서 명령문의 주어가 you라는 것을 증명하기도 한다. 다음 예문(11a-c)를 보자.



- (11) a. Leave the room, won't you?
 - b. *Leave the room, won't he?
 - c. *Leave the room, won't I?

(11b)와 (11c)가 비문법적인 이유는 부가절의 주어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부가 의문문의 주어는 반드시 주절의 주어와 일치해야 한다. 따라서 (11a)에서처럼 부가 의문문의 주어가 you일 경우에만 문법적이라는 것은 명령문의 주어가 you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이다. Soames 와 Perlmutter(1979:15-21)에서도 명령문의 주어가 you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 예문(12a-c)을 보자.

- (12) a. Wash your own car.
 - b. *Wash my own car.
 - c. *Wash her own car.

(12b)와 (12c)가 비문법적인 이유는 *own*앞에 있는 대명사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own*앞에 쓰이는 대명사는 반드시 주어와 일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12a)와 같이 *own*앞에 *your*만 허용한다는 것은 명령문의 주어가 *you*라는 증거라고 주장한다. 다음의 예문 (12a-c)경우에도 그렇다.

- (13) a. Hold your breath.
 - b. *Hold my breath.
 - c. *Hold her breath.

(13b)와 (13c)가 비문법적인 이유는 breath앞의 대명사가 잘못 쓰였기 때문이다. 호흡은 자신만이 참을 수 있기 때문에 breath앞의 대명사는 반드시 주어와 일치해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13a)처럼 breath앞에 your만 허용한다는 사실은 명령문의주어가 you라는 증거가 된다. 명령문은 주어 you뿐만 아니라 다음 예문(14a-b)에서처럼 시제가 없기 때문에 조동사 will이 삭제되었다고 본다. 다음 예문(14a-b)와 (15a-b)을 보자.



(14) a. Be quiet!

b. *Are quiet!

(15) a. You will be quiet.

b. You are quiet.

만일 명령문에 시제가 있다면 (14b)가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14b)는 비문이 되고 (14a)만 허용된다. 따라서 (14a)를 (15b)가 아니라 (15a)로부터 도출한다고가정할 때 올바른 문법성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명령문의 부가 의문문에 will이 있으므로 명령문의 구조에 will이 설정되어야 한다고 하나, 명령문의 부가 의문문에 will 이외의 조동사가 쓰이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음 (16a-c)예문을 보자.

(16) a. Come down quietly, can't you?

b. Be nice to him, would you?

c. Leave immediately, could you?

위의 예문(16a-c)에서는 will 대신 can, would, could가 부가 의문문의 조동사로 쓰였다. 조동사 will의 기능과 의미에 관해서 Bolinger(1977:156-157)는 몇몇 경우에 있어 조동사 will은 미래를 언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대신에 그것은 청자의 의향과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다음 예문(17)을 보자.

(17) a. Accept the job, will you?

b. Help me, will you?

문장(17a)는 "Accept the job, if you will"의 의미나 "I asked him to accept the job, if he would."와 같은 문장과 연관된다. 그런데 "I asked him to accept the job, if he would, but he wouldn't, then or later."이라는 문장에서 wouldn't는 과거 시점에서 본 미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가 '거절했다'즉 '받아들일 용의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문장에서 will은 미래를 나타내지 않고 화자가 말하고



있는 사람의 의향을 나타낸다. 문장 (17b)는 "Help me, are you willing to?"의 의미를 지니고, 이 문장에서 will you는 의향을 나타내고, 그것은 please와 같은 회유의 기능을 가진다. 진행형과 관련하여 Davies(1986:14)는 명령문의 진행형이 화자가청자에게 '무엇인가를 하라'가 아닌 '어떤 특정 시점에 그것을 하는 진행상황에 있어라'고 말하는 것을 허락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명령이 발화 순간에 청자의 행동을 요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제가 없는 것과 더불어 시제를 넘나드는 현상은 문법 이전의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시제와 관련하여 명령문의 진행형과 같이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다음의 예문 (18a-c)는 명령문이 진행형과 함께 잘 쓰이고 있다.

- (18) a. Be waiting on the corner at six.
 - b. Be working when she comes in then she will be impressed.
 - c. Don't be messing about when the bell rings.

(18a-c)에서 화자는 미래의 특정한 시점에서 명령의 행동이 지속되기를 요구한다. 화자와 청자 간에 그 특정한 미래 시점에 대한 상호 지식이 이루어지면 미래 시점을 나타내는 부사구 없이도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진행형의 명령은 현재 상태의 지속을 의미할 수 있다. 다음 예문 (19a-b)을 보자.

- (19) a. Open the door.
 - b. Keep the door open.

(19a)는 문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가능한 발화이고, (19b)는 문이 이미 열려진 상태를 계속 유지하라는 명령의 수행력을 갖는다. 다음 예문(20a-d), (21a-c)을 보자.

- (20) a. *Believe the claim.
 - b. *Understand the answer.
 - c. *Want more money
 - d. *Hope it rains.



- (21) a. Don't feel bad.
 - b. Be seated.
 - c. Be prepared.

예문(20a-d)처럼 명령문의 또 하나의 통사적 특성으로 인정되는 것은 상태 동사와함께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나 예문(21a-c)와 같은 상태를 나타내는 명령문은 사용될 수 있다. Davies(1986:15)는 이를 상태 동사라서 사용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상태 또는 사건이 청자의 통제 밖에 있는 경우에는 명령문이 명령의 수행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용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통사범주 측면에서 본 명령문은 항상 예외를 가지고 있으며, 그 예외적인 경우는 담화 기능의 설명이 없이는 해석의 어려움을 알 수 있다. 다음 예문 (22a-c)와 (23a-c)는 자동사와 타동사가 쓰이는 명령문이다.

- (22) a. Be going you out of the door when he arrives!
 - b. Leave you now!
 - c. Arrive you before 6 o'clock!
- (23) a. *Read you that book!
 - b. *Eat you up!
 - c. *Always laugh you at his jokes!

Radford(1997:393-394)에서 인용되고 있는 Henry(1995)에 의하면 Belfast 영어의명령문에서 자동사인 경우에는 예문(22a-c)에서처럼 주어가 동사 다음에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예문 (23a-c)처럼 타동사인 경우에는 주어가 동사 다음에 오면 비문이 되었다. Pierce(1992)는 영유아들이 사용하는 영어에서도 타동사인 경우에는 주어를 동사 앞에 사용하지만 go, fall 같은 자동사인 경우에는 주어를 동사 뒤에 사용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음 예문(24a-c)를 보자.

(24) a. Go *truck*!





- b. Fall the cradle!
- c. Come Mommy!

이런 현상은 보편 문법 원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어린아이의 초기 문법에 의해서 설명되고 있다. Baker(1988)에 의해 제시된 고정 의미역 할당의 결과로 주제 논쟁이보어로 투사되기 때문에 주어가 동사 뒤에 위치하게 된다는 것이다. Radford(1997)는 Belfast 영어에서 나타나는 다음 예문(25a-c)와 같은 명령문이 어떻게 도출되는지제시하고 있다.

- (25) a. Go you to school!
 - b. You read that book!
 - c. *Read you that book!

(25c)가 문법적인 문장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read가 타동사이기 때문이다. (25a)의 도출 과정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동사가 앞으로 이동하여 명령문이 도출된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명령문에서는 어떠한 방법을 이용하든지 동사가 현저하게 나타나는 통사 구조로 바뀐다는 점이다. 다음 예문 (26a-c)를 보자.

- (26) a. You will eat the meat.
 - b. Eat the meat.
 - c. Imp You will eat the meat.

(26a)는 (26b)와 같은 명령의 뜻 외에 단순한 예언을 나타내는 서술문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즉 (26a)는 두 가지 뜻을 갖는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명령변형규칙을 적용하여 명령문을 도출할 수 있는지 분명치가 않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Katz와 Postal은 명령문의 구조에 Imp라는 명령형태소를 설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1) 그들에 의하면 (26b)의 구조는 (26a)가 아니라 (26c)와 같이 된다. Imp설정은 구조적



¹⁾ Imp는 "the speaker requests(asks, demands, insists etc.) that" 이라는 뜻을 가진 추상적인 어휘라고 볼 수 있다.

측면에서 봤을 때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어떤 종류의 문장부사들은 you will로 시작되는 서술문과는 자연스럽게 같이 쓰이는데 명령문과는 절대 같이 쓰이질 않는다. 다음 예문 (27)을 보자.

- (27) a. Maybe you will drive the car.
 - b. *Maybe drive the car.

(27b)와 같은 비문들이 생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들 문장의 기저구조에 *Imp*를 설정하여 *Imp*와 이들 문장 부사들 간에 선택제약을 두면 될 것이다. 두 번째로 어떤 부정부사들은 you will로 시작되는 서술문과는 자유롭게 같이 쓰이지만 명령문과는 절대로 같이 쓰이지 않는다. 다음 예문 (28)을 보자.

- (28) a. You will hardly touch your food.
 - b. *Hardly touch your food.

(28b)의 비문들이 생성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들 문장의 구조에 *Imp*를 설정하고 *Imp*와 이들 부정부사가 함께 쓰일 수 없다는 제약을 두면 될 것이다. 세 번째로 어떤 동사들은 *you will*로 시작되는 서술문에는 자연스럽게 쓰이지만 명령문에는 절대로 쓰이지 않는다. 다음 예문 (29a-d)를 보자.

- (29) a. You will want to go.
 - b. You will hope to be famous.
 - c. *Want to go.
 - d. *Hope to be famous.

(29c)와 (29d)같은 비문이 생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그 기저구조에 Imp를 설정하고 Imp와 이들 동사간의 선택제약을 두면 될 것이다. 네 번째로 어떤 유형의 문장들은 등위접속이 가능한데 반면 어떤 유형의 문장들은 그것이 불가능하다. 다음 (30a-d)예문을 보자.





- (30) a. Put on your coat and go out.
 - b. The boy put on his coat and went out.
 - c. Come here and I'll give you a dollar.
 - d. *I'll give you a dollar and come here.

(30)의 문장들은 두 개의 절이 and라는 등위접속사로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명령문과 명령문이 결합된 (30a), 서술문과 서술문이 결합된 (30b) 그리고 명령문과 서술문이 결합된 (30c)는 모두 좋은 문장인데 반하여 서술문과 명령문이 결합된 (30d)는 비문임을 보여준다. 즉 등위접속문 첫 번째 절이 명령문일 때만 and 다음에 명령문이올 수 있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두 번째 절에 명령문이 절대로 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현상은 명령문의 구조에 Imp를 설정하면 Imp와 등위접속문간의 선택제약에 의해 쉽게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B. 명령문의 유형

앞서 파악한 명령문의 구조를 바탕으로 이 장에서는 명령문의 유형을 알아보자.

1. 강조 명령문

Do는 소위 강조 명령문 앞에 나타나는데, 동사원형 앞의 do는 화자가 언급하고 있는 명령에 절박감을 더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다음 예문 (31a-b)을 보자.

- (31) a. Get up early.
 - b. Do get up early!

Bolinger(1977:193-194)는 do가 강한 긍정을 나타낸다고 주장한다. 여기에서 강한 긍정이라는 것은 대조적인 긍정의 토대가 될 수 있는 부정이 선행함을 뜻한다고 한다. 이것은 평서문에서 다른 동사와 함께 쓰인 do는 행위의 존재를 강조하며 강조의 성격상 어떤 행위의 존재 여부가 문제기 되었을 대 do강조문이 쓰일 수 있다는 것이





다. 예를 들어, do는 일정한 분량을 나타내는 표현이 확정적일 때만 가능하다고 한다. 다음 (32a-c)와 (33a-b)를 보자.

- (32) a. Eat green apples.
 - b. *Do eat green apples.
 - c. Do eat those green apples.
- (33) a. *Do leave for New York at 5:00.
 - b. Do leave for New York at 5:00 tomorrow.

일정한 분량만을 표현한 (32a)와는 달리 확정 명사구로 표현된 (32c)에서는 앞서서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do가 쓰일 수 있고, 정확한 시각만을 표현한 (33a)에서는 do가 쓰일 수 없지만 (33b)처럼 tomorrow가 덧붙여지면, 과거에는 같은 시각에 그 행위가 수행되지 않았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do를 사용할 수 있다. Quirk, Greenbaum, Leech & Svartvik(1985:833)도 긍정 명령문에 do를 사용하면 명령의 의미를 설득력 있고 강조적인 내용이 되도록 하며 남성적 언어보다 여성적 언어의 특색을 나타낸다고 말하였다.2) 다음 예문 (34a-c)를 보자.

- (34) a. Do have some more tea.
 - b. Do let's go for a walk.
 - c. *Do you have some more tea.

예문 (34a-c)에서처럼 이러한 *do*의 사용은 주어가 없는 2인칭 명령법과 *let*을 사용한 1인칭 명령법에만 사용되기 때문에 주어가 있는 명령법에 사용되면 비문법적이 된다.



^{2) &}quot;A positive imperative can be made more persuasive or insistent by adding do before the verb. Do reinforces the positive sense of the imperative. For many people this persuasive use of do seems more typical of female than mele speech"

2. 부가 명령문

명령문 문장에 부가 의문문이 사용되어 상대방의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 부가 의문문에 사용되는 조동사는 보통 긍정문에는 will이 사용되고, 부정문에는 won't가 사용되며, 이들의 주어는 you이다. 그러나 you이외에 다른 주어와 여러 형태의 다른 조동사가 사용될 수도 있다. 다음 예문 (35a-c)를 보자.

- (35) a. Open the door, won't you?
 - b. Open the door, will you?
 - c. Don't open the door, will you?

명령문에 추가된 부가 의문문은 명령의 힘을 좀 더 약화시킨다고 한다. 그래서 '문을열어주지 않겠니?'라는 뜻의 (35a)와 (35b)는 '문을 열어라'라는 뜻의 *Open the door*보다 한결 부드럽게 들린다. (35b)에 첨가된 긍정 부가 의문문은 부정 부가 의문문보다 명령의 힘이 좀 더 강하다. (35c)는 부정 명령문에 긍정 부가 의문문이 첨가된 예로서 그만큼 부정 명령의 힘이 약화된다.

3. 명시적 주어 명령문

명령문은 주어 you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왔다. Bolinger(1977:8)에 따르면 명령문에서 주어 you를 생략하지 않는 것은 경고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한다. 주어가 없는 명령법이 주어 you를 가진다는 증거는 특정한 상황에서 명령문이 다음 예문(36a-d)과 같이 눈에 보이는 주어 you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는 반면다른 대명사들은 명령문의 주어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 (36) a. You behave yourself!
 - b. *She behave herself!
 - c. *He behave himself!
 - d. *They behave themselves!



You가 아닌 다른 주어가 명령문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 예문 (37)처럼 화자가 특정한 그룹의 사람들을 호칭으로 부를 경우이다.

(37) Passengers going to Dayton, from a line over here.

또한, 명령문 주어는 예문 (38a-b)처럼 수량사, 한정사 또는 비한정사도 사용할 수있다.

- (38) a. Somebody please go find a doctor.
 - b. Nobody move!

또한, 명시적 주어 명령문은 대조 기능의 주어 you가 명시적으로 사용되는 명령문과 비대조 기능의 주어 you가 명시적으로 사용되는 명령문으로 구분 지을 수 있는데 먼저 대조 기능의 명시적 명령문의 예문 (39a-c)을 보자.

- (39) a. You take the high road, I'll take the low load.
 - b. You be Butch Cassidy, and I'll be the Sundance Kid.
 - c. You take those two out on the tray. And I'll just put this milk away.

위 예문(39)처럼 두 가지 이상의 의미 역할이 서로 다른 행위자에게 할당되는 문장 구조에 명령문이 포함되어 있으면, 대조 기능의 주어 *you*가 명령문에 명시적으로 사용된다. 다음으로 비대조 기능의 명시적 예문 (40a-c)를 보자.

- (40) a. "Can't you take a little joke, my friend?" "Don't you call me your friend.
 - b. "You take it easy boy" Tom's mother whispered.
 - c. She led him to the door. "And don't you ever forget what we swore to do"



명령문을 발화하는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이나 행위를 요청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문 (40a)처럼 짜증스러움을 표현하거나, (40b)처럼 위안이나용기를 주거나, (40c)처럼 훈계나 충고를 할 때, 비대조 기능의 주어 you가 명령문에 명시적으로 사용된다.

4. 부정 명령문

다음 예문 (41)을 보자.

- (41) a. You open the door. \rightarrow Don't you open the door.
 - b. Someone open the door. \rightarrow Don't anyone open the door.

일반적으로 명령문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예문(41a-b)처럼 문두에 *Don't*나 *Do not*을 추가하면 된다. 이와 같은 문장 구조의 명령문을 부정 명령문이라 고 한다. 다음 예문 (42a-d)를 보자.

- (42) a. *Do not you open the door.
 - b. *You do not open the door.
 - c. *Do not anyone open the door.
 - d. *Anyone do not open the door.

2인칭 주어를 갖고 있는 명령문과 3인칭 주어를 갖고 있는 명령문은 부정 명령을 할때 예문(42a-d)의 문법성 판단에서 알 수 있듯이 don't를 donot으로 대신 할 수 없다. 다음 예문 (43)을 보자.

(43) Don't Make a noise, will you?/can you?

부정 명령문은 좀처럼 부가 의문문으로 사용되진 않지만, 예문(43)처럼 부가절이 사용될 때에는 긍정의 조동사 will이나 can이 사용되며 부정 명령의 힘은 좀 더 약화



된다.

5. Let's 명령문

1인칭의 의사를 2인칭에 직접 전하는 것이 직접 명령이라고 한다면, 2인칭을 통하여명령의 내용을 간접적으로 1인칭 혹은 2인칭을 포함하는 1인칭으로 향하게 할 수도있고, 또 3인칭으로 향하게 할 수 있는 의사 전달 방식을 간접 명령이라 한다. 이 간접 명령에 let을 사용한다. Let's로 시작하는 명령문은 화자와 청자를 포함한 행동을제안한다.3) 다음 예문 (44a-b)를 보자.

- (44) a. Let's eat breakfast.
 - b. I propose that you and I eat breakfast.

(44a)의 의미는 (44b)에서 도출할 수 있다. Let's 명령문은 또한 명령이나 지시에 더가까운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이는 다음 예문 (45)에서 알 수 있다.

- (45) a. Let us bow our heads in prayer.
 - b. You all have something to do for Ms. Johnson. Let's do it, please.
 - c. Let's look at the word, "brain", for example.
 - d. Let's look at a few of them, as they can help us to become smart buyers.

(45c-d)처럼 명령을 표현하는 공손한 방식으로써 let's 사용은 다양하게 쓰인다. Let's 명령문은 때때로 상승 어조를 가진 부가 어구와 함께 나타나기도 한다. 부가 어구 앞에 콤마를 삽입하고, 마치 부가 의문문인 것처럼 끝에 물음표를 넣기도 한다.



³⁾ Let's 명령문은 때때로 1인칭 포함 명령문이라고 불리는데, 이는 let's가 let us의 간단한 형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Quirk et al.(1985:830)은 "Let us..."구문과 "Let's... "구문을 별개로 보고 있다. Let's의 let은 문장 도입의 한 접두사로서 2인칭 명령에 타동사로 사용되는 let과는 구별되어야한다. 'Permit us to go'의 뜻인 'Let us go'는 'Let's go'로 축양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축약되지 않은 동사 let다음 부가 의문문이 사용될 경우 주어는 'let us go, will you?처럼 you가 되어야겠고, Let's다음에서는 부가 의문문이 주어가 'Let's go, shall we? '에서처럼 we가 되어야한다.



다음 예문 (46)을 보자.

(46) a. OK, let's keep that on, shall we?

b. Let's take turns. OK?

영국영어서는 예문 (46a)처럼 shall we?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미국영어에서는 OK?를 사용하는 경향성이 있다(박상수 2010:20). Let's 명령문의 부정은 일반적으로 다른 구문들과는 다르다. 다음 예문 (47)을 보자.

(47) a. Let's not say anything about it.

b. Let us not say anything about it.

Let's 명령문의 부정은 (47)에서 알 수 있듯이 Let's 뒤에 not를 삽입함으로써 부정이 된다.

6. 호격 명령문

다음 예문 (48)를 보자.

- (48) a. Ann, you go first
 - b. You, come here.
 - c. Look what I found under the couch, dear.

호칭은 고유 명사나 Dear, Sir 등과 같은 호칭의 종류와 같은 명사구를 포함하는 발화를 나타낸다. 호칭은 누군가를 부르거나 어떤 이의 주의를 끌기 위해 사용된다. 예문 (48a-c)처럼 특정 사람이나 그룹이 어떤 일을 하도록 지시하는 명령문으로 사용되는데 문어에서 콤마를 사용하여 나머지 부분의 발화와 구분된다.



7. I Need you 명령문

I need you 로 시작되는 부드러운 지시 명령문은 미국영어에서 전개해 왔다. 세 단어로 나타나는 이 유형의 명령문에서 화자는 청자가 행동하기를 원하는 것을 표현하며 I need you 다음에 항상 부정사가 뒤따라온다. 다음 예문 (49a-c)를 보자.

- (49) a. I need you to fill out this form.
 - b. I need you to take off your clothes and put on this robe.
 - c. I need you to step back from the car, sir.

예문 (49a-c)처럼 I need you 명령문은 매우 비인칭적이며 매일 다수의 낯선 사람들을 대하는 전문적인 사람들에 의해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C. 명령문의 의미

앞서 명령문의 구조적 측면을 토대로 명령문의 유형을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명령 문의 구조적 측면이 지닌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의미적으로 어떻게 보완 되어야 하는 지 알아보고자 한다. Bolinger(1977:150-182)는 명령문에서 재귀대명사 *yourself*만 허용된다는 주장에 대해 상황에 따라서는 다른 재귀대명사가 쓰일 수 있다고 주장한 다. 다음 예문(50)를 보자.

(50) Don't kill yourself - Don't kill myself! Why should I?

(50)는 echo question에서 myself가 쓰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화자가 마음속에 you라는 정확한 대상이 없을 때, somebody, everybody, anybody, nobody, whoever가 주어로 사용되는 비 확정명령문에서 yourself 이외의 재귀대명 사가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 예문(51a-d)를 보자.

(51) a. Whoever wants to dance get himself a partner and let's begin.



- b. Somebody help himself quick, before all this food gets cold.
- c. Nobody say a word about himself-stand on the Filth if you have to.
- d. One of you lend a hand and make himself useful here; let's get this man to where he'll more comfortable.

(51a)는 춤을 추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파트너를 구하라는 의미를 나타내며 특정한 명령의 대상물이 없이 사용되고 있다. (51b)에서도 음식이 식기 전에 빨리 먹으라는 것을 뜻하며 특정하게 지시되는 대상이 없다. (51c)의 경우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묵비권을 행사하라는 뜻으로 사용되며 마찬가지로 특정한 지시 대상이 없이 사용되고 있다. (51d)에서는 도와달라는 의미를 나타내는데 명령의 대상이 지정되어 있지 않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서는 명령문이라 할지라도 yourself가 아닌 himself가 사용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볼 것은 주어가 3인칭 단수임에도 동사원형이 쓰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명령문은 문장의 형태에 상관없이 동사원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의 예문 (52a-c)에서 혼합의 결과로 myself가 사용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52) a. Take me, as an example.
 - b. I take myself as an example.
 - c. Take myself, as an example.

(52a)와 (52b)가 혼합되어서 (52c)가 되었다. 이러한 예문들은 명령문의 주어가 *you* 라는 것을 재귀대명사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 예문 (53)을 보자.

(53) I keep telling him she's stepping out on him but he absolutely won't believe it.

(53)은 그녀가 그를 배신하고 있다고 계속 말하는데도 그는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화자가 말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청자는 화자의 말을 거부하고 있다. 다시 말





해서 여기서 *will*은 미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의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 예문(54)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명령문에서 *will you*는 *please*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54) a. Help me, will you?

b. Talk back to me, will you?

(534)는 제발 도와 달라는 의미이며 *will* 때문에 미래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Bolinger(1977)는 명령문의 *will*은 미래를 의미하는 *will*과 동음이의어로 보고 있다. 다음의 예문(55a-b)은 *will*이 미래 의미를 나태나는 예문이다.

- (55) a. Where are you going? I'm going on a picnic, and you're going along.
 - b. What are you having there? We're having some ice cream, and you're having some with us.

(55a)는 소풍을 가는 상황에서 같이 가자는 의미로 진행형으로 쓰이고 있으며 (55b)는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상황에서 같이 먹자는 의미로 역시 진행형이 쓰이고 있다. Bolinger(1977:187-88)는 will보다는 shall이 명령문에 속하는 조동사라고 하였다. 그 이유는 shall은 명령을 요구하는 조동사이며 같은 의미로 반복해서 쓰이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 예문(56a-b)를 보자.

- (56) a. Shall we go now? Yes, let's.(*Yes, we shall)
 - b. Shall they report at the same time tomorrow? Yes, have them report then.(*Yes, they shall report)

(56a)는 "우리 갈까요?" 라는 물음에 "갑시다"라는 명령으로 대답하고 있다. *shall*이 반복해서 쓰이지 않고 있다. (56b)에서도 물음에 명령으로 대답하고 있고 *shall*이 반복해서 쓰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제까지 우리는 명령문은 주어가 *you*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명령문의 미래를 나타낸다고 주장되는 *will* 도 미래를 나타낸다는 거보다 상대방을 부추기는 의미로 쓰이고 있으며 명령문에서 반드시 *will*이 쓰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 예문 (57a-b)를 보자.

- (57) a. Spare the rod and spoil the child.
 - b. Break that vase and I'll break your neck.

(57a-b)는 명령문 형태이지만 명령을 나타내지 않는다. (57a)는 매를 아끼면 아이를 망친다는 의미이고, (57b)는 꽃병을 깨면 목을 부러뜨리겠다는 의미이다. 두 예문이모두 조건을 나타낸다. 이 문장들이 명령이 되어버리면 의미상으로는 어색한 문장이된다. 이러한 조건문과 순수 명령문의 통사적 차이점을 다음 예문 (58a-b)에서 잘 보여준다.

- (58) a. *Take our medicine and get well.
 - b. Take your medicine and get well.

(58b)처럼 순수 명령문에서는 두 번째 절에서 주어가 생략될 수 있지만 (58a)처럼 조건문에서는 두 번째 절의 주어가 생략될 수 없다. 다음 예문 (59a-b)를 보자.

- (59) a. If you write any letters, I'll mail them for you.
 - b. *Write any letters, and I'll mail them for you.

(59a-b)에서는 조건절에 any가 쓰이면 주어가 you인 경우에도 삭제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59a)에서 you가 삭제될 수 없는 것은 조건적 명령문이 갖는 고유의속성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조건적 명령문은 조건이 사실적이거나 긍정적이어야 한다. (59b)예문에서는 any가 쓰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상황을 나타내지 않는다. 그래서 any를 생략하면 비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하지만 다음 예문(60)과 같이 some이 쓰이면 (59b)는 문법적 문장으로 볼 수 있다. 다음 예문 (60)을 보자.





(60) Write some letters and I'll mail them for you.

(60)가 문법적인 이유는 조건절에 긍정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some*이 쓰였기 때문이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명령문은 단순히 통사 구조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아니고 의미론적 요소를 고려해야 된다는 점이다. 더불어 명령을 나타내는 순수 명령문에서도 *any*가 쓰이면 비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다음 예문(61a-c)을 보자.

- (61) a. *Let me have any of your time tonight, will you?
 - b. *Please go with anybody to church tomorrow.
 - c. *Write anybody a letter of condolence.

명령문은 화자에 의해서 청자가 그렇게 해줄 것이라고 기대되는 긍정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한다.⁴⁾ 그러나 *any*가 쓰이면 부정적인 상황을 의미할 수 있다. 예문 (61a)는 오늘밤에 시간을 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화자는 긍정적인 대답보다는 부정적인 대답을 예상하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문(61a-c)는 모두 비문이 되고 있다. 다음 예문(62a-d)는 상태 동사가 쓰이는 조건문에서 고유의결과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조건문으로서 접속사 if와 주어가 삭제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62) a. If you own this property I'll buy it from you.
 - b. *Own this property and I'll buy it from you.
 - c. If you own a piece of property you get taxed unmercifully.
 - d. Own a piece of property and you get taxed unmercifully.

(62a)는 당신이 땅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사겠다는 의미인데 이 문장은 조건에 대한 결과가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62b)가 비문이 된다. 그러나 (62c)는 땅이 있으면



⁴⁾ Searle(1969:66-7)은 명령문의 적정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화자는 자기가 요구하는 행위를 청자가 수행할 수 있다고 믿고 있어야 한다. 둘째,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청자가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한다. 셋째, 화자는 청자가 그런 행동을 수행하는 것을 원해야 한다.

세금을 내는 것은 조건에 대한 결과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61d)가 가능한 문장이되는 것이다. 다음 예문 (63a-b)를 보자.

(63) a. Eat you spinach and you'll be strong.

b. Join the Air Force and you'll see the world.

(63a)는 시금치를 먹으면 건강해진다는 조건을 나타낼 수 있고, 더불어 시금치를 먹으라는 명령을 나타낼 수 있다. (63b)는 공군에 가면 세상 구경을 할 수 있다는 조건도 되는 동시에 공군에 가라는 명령도 될 수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조건문과 명령문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측면도 필요하지만 의미적 요소도 필요하다는점을 알 수 있다. 명령문은 미래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청자가 할 수 없는 어떠한 것을 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이상할 수가 있다. 다음 예문(64a-b)를 보자.

(64) a. *Understand the answer.

b. *Hope it rains.

(64a-b)에서 청자 마음대로 답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비가 오기를 희망한다고 해서 비가 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청자가 마음대로 수행할 수 없는 것은 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소망이나 희망, 농담 같은 충고는 명령문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다음 예문 (65a-b)를 보자.

(65) a. Know your lesson.

b. *Don't know your lesson.

명령문은 화자나 청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명령이 이루어지는 것이 반적이다. (65a)는 화자나 청자에게 도움이 되지만 (65b)는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명령은 적정 조건을 어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화가가 청자에게 그렇게 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상황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비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Schreiber(1972)는 명령문을 지시 명령과 권고 명령으로 구분하고 있다. 다음 예문





(66a-c)를 보자.

- (66) a. Come down from there this instant.
 - b. Be glad that we are leaving.
 - c. *Do be glad that we are leaving.

(66a)는 지시 명령이고 (66b)는 권고 명령이다. 지시 명령과 권고 명령의 차이는 (66c)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권고 명령의 경우에는 do와 함께 쓰일 수 없다는 것이다. Schreiber(1972)는 do는 지시 명령문에서만 쓰인다고 했다. 다음 예문 (67a-d)를 보자.

- (67) a. Be careful.
 - b. Be glad.
 - c. Do be careful.
 - d. *Do be glad.

(67a)는 주의하라는 의미로 수행될 수 있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명령이 가능하다. 하지만 (67b)는 기뻐해라 라는 것은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67d)가 비문법적인 문장이 되는 것이다. 다음 예문 (68a-b)를 보자.

- (68) a. I suggest that you do try to be more helpful.
 - b. *I command that you do try to be more helpful.

(68a)는 권고 명령이고 (68b)는 지시 명령이다. do가 행위를 수행하는 의미를 나타낸다면 지시 명령문인 (68b)가 문법적인 문장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68a)가문법적인 문장이 되고 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바 순수명령문을 구분하기 위한 do는 맞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를 바탕으로 명령문은문장 유형과 관계없이 동사의 원형이 부각되면 명령문으로 간주할 수 있으나 명령의





정도는 구조적 측면과 의미론적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V.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명령문의 전반적인 형태와 구조적 측면 그리고 의미적 측면을 살 펴보았다. 그 결과 명령문의 주어는 you가 전형적이지만 그 밖에 여러 종류의 주어 가 사용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명령문은 동사원형으로 시작되 는 것이 전형적이지만, 문장 유형에 관계없이 동사원형이 부각되면 명령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명령문의 문법성은 구조적 측면과 의미적 요인 에 의해서 결정된다. 명령문은 그 의미가 다양한 만큼 다양한 상황에 사용되기 때문 에 상황맥락에 맞는 알맞은 명령문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자연적 언 어의 발화는 화자에게서 청자에게로 주어지는 일방통행의 행위가 아니라, 청자의 반 응이 화자의 발화에 다시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호작용의 행위이다. 그러므로 화자와 청자의 사회적 위치, 발화 이전의 화자와 청자의 발화 습관, 발화 순간의 상황, 화자 와 청자의 개인적 성격, 화자와 청자의 문화적 배경 등이 발화의 수행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교육 현장에서 영어교육의 목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영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재 영어교육은 일방적이고 주입식 교육을 통한 영어교육이 행해지고 있다. 명령문의 경 우도 마찬가지이다. 현장수업에서 명령문은 다소 획일적이고 일반적인 형태의 명령문 만을 다루고 있어 구조적 측면과 의미적 요소를 각각 다룬 명령문은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다. 결국 본 논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자 하는 것은 명령문은 상황 에 따라 구조와 의미가 달라지므로, 교수자는 실제적인 자료를 많이 활용하여 학습자 가 바르게 습득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경원. "Some과 Any의 화용론적 분석." 『언어연구』 (한국현대언어학회) 19.1(2003):1-21]
- 박상수. 2010. 「EFL환경에서 영어 사용 능력을 키우기 위한 문법」. 서울: 경문사
- Akmajian, A. and F. Henry. *An Introduction to the Principles of Transformational Syntax. Cambridge:* The MIT Press, 1975.
- Baker, M. Incorporati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8.
- Berry, M. 1975. Introduction to Systemic Linguistics (I, II). London: B.T.Batsford.
- Boliner, D. Meaning and Form. New York: Longman Group Ltd, 1977.
- Davis, E. 1986. The English Imperative. London: Croom Helm.
- Henry, A. Belfast English and Standard English: Dialect Variation and Parameter Setting.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 Huddleston, R. and G. K. Pullum. 2002. *The Cambridg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atz, Jerrold & Paul Postal. *An Intergrated Theory of Linguistic Descriptions*,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1964
- Pierce, A. Language Acquisition and Syntactic Theory: a Comparative Analysis of French and English Child Grammars. Dordrecht, 1992.
- Quirk, R., S. Greenbaum, G. Leech and J. Startvik. 1985.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London: Longman
- Radford, A. Syntactics Theory and the Structure of English.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 Ron Cowan. *The Teacher's Grammar of English* .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 Schreiber, P. A. "Style Disjuncts and the Performative Analysis." *Linguistic Inquiry* 3(1972): 321-47
- Searle, J. Speech Act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9.





Soames, S. and David M. Perlmutter. *Syntactic Argumentation and the Structure of English*. Berkeley: U. of California Press, 1979.

